韓國醫史學會誌 第20卷 第2號

의학인물 연구에 있어서 족보의 필요성

이선아*
한국한의학연구원

The Need for a Table of Descent in Studying Medical Persons

Lee Suna*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lthough a table of descent is a mandatory primary source for studying medical persons, but most of those who practiced medicine were not but of step families. Because members of step families are not usually recorded accurately, preceeding studies did not put much emphasis on them. But as more researchers study biography and the number of studies done on historical figures are increasing tremendously, its value as a source has increased as well. In order to research a person, obtaining background information is a priority, which includes to what family they belong to, to what specific branch of the family they belong to, etc. Whether or not the person has ever worked with a public institution is important as well.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ecent table, medical person

Ⅰ. 서론

의학인물연구에서 족보는 연구자가 접해야 할 1차적 사료이지만, 불행하게도 '嫡庶'니 '貴賤'이니 하는 용어들로 족보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어 그 가치의 활용성에서 2차 자료의 위치조차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물사연구자가 점차 확대되고 역사인물들의 업적과 생애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료로서의 족보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족보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難讀性'으로 인해 연구자들 사이에서조차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연구자들도 족보를 그리 쉽게 구해 볼 기회가 흔하지 않으며, 또한 배울 만한 공간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도 있다. 또한 여기에 투입된 노력과 시간에 비하면 족보에 담겨진 미흡한 정보로 인해 그 성과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도 있다.

* 교신저자 : 이선아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한국한의학연구원
042-868-9443
E-mail : gnature@kiom.re.kr

어느 인물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면, 그가 어느 가문에 속하는지, 또는 어느 특정 파에 속하는지 확인할 목록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예컨대 의학인물 尹知微가 『의과선생안』에 "본관은 파평이요, 아버지는 통정벼슬을 지낸 覃休이고, 할아버지는 생원인 棐요, 증조할아버지는 우의정을 지낸 漑이며, 외조는 大邱人 金壽達이고, 병조판서를 지낸 知敬의 從弟"라고 기록되어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개 『파평윤씨대동보』에서 찾으면 나올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실지로는 파평윤씨세보에는 『坡平尹氏鈴川府院君派譜』『坡平尹氏版圖公派譜』『坡平尹氏司果公派譜』『坡平尹氏牧使公派譜』등등 훨씬 더 많은 세보가 있다. 그 중에서 '尹知微'란 인물을 검색하지만 윤지미란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坡平尹氏版圖公派譜』에서 '尹覃休'란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아래에 아들 중에는 '尹知微'란 인물은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물론 우리는 의학인물인 윤지미의 아버지 윤담휴는 분명히 이 족보상에 수록된 인물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의과선생안』에

기록된 "아버지는 覃休이고, 할아버지는 棐이며, 증조할아버지는 漑이며, 외조는 金壽達이고, 知敬의 사촌동생"이라고 하는 사실과 결부시켜 확신할 수 있다.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전통시대에 편찬된 족보의 대부분은 지배층 중심이요, 더구나 역사에 공헌을 한 후손들을 둔 인물들 중심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당시 일반 민중들이나 서얼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만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중사회에서 양반지배층보다는 기층민의 삶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더 절실한 일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1차적 사료인 족보에서나마 그 단서를 추적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학인물연구에 있어서 인물들의 생몰연대나, 그 인물들의 인맥도나 학맥도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족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본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연구 진행되고 있는 의과학인물들을 대거 수록하고 있는 『姓源錄』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Ⅱ. 본론

1. 족보의 개념 및 성격

족보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숨결이 꿈틀거리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기록이다. 이 족보는 당시대의 인물들의 先系, 혼맥, 인맥, 교육, 생활 등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어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현재에도 과거 어느 때보다 족보간행이 활발하다. 과연 그렇다면 족보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씨족의 시조로부터 그 시조의 후손들을 世代別 系派別로 收錄한 名單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넓은 뜻으로 해석하면 모든 형태의 系譜記錄 즉, 어느 한 개인이건 또는 집단이건 그들의 혈통적 배경을 밝히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이다. 예컨대, 家乘이니 簪纓譜니 文譜니 大同譜를 말한다. 즉, 광의로 해석해서 모든 계보기록을 뜻하며 씨족의 명단을 세대, 계파별로 밝혀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가 다 소속 씨족이 있고 또 반드시 "不知所從來"라 하여 그 자신의 근본이 어디에 있으며 조상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관념이었다. 그렇다면 씨족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씨족이란 같은 한 조상에서 갈라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첫째, 姓이 서로 같고 本貫이 또 서로 같은 사람들의 집단이요, 둘째는 祖上이 서로 같다는 사실이 系譜上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그리고 조상이 서로 같다는 사실에 특별한 意義를 부여하고 그 祖上이 서로 같기 때문에 생기는 서로의 관계를 維持强化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이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론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족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족보가 소중한 것이고, 족보가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폐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물 연구에서 그들이 어떤 가문출신이며 어디에 살았으며 외가는 어디고 처가는 어느 집안이고 이런 것을 밝힐 수 있는데에는 처음부터 족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어느 족보이건 맨처음 보면, 일단 卷首部가 나온다. 그 卷首部에는 序文, 凡例, 派系圖 등 그 밖에 각종 기록 예컨대 古戶籍 등이 들어가 있는 족보도 있다.

本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本孫 男子의 경우 기사가 맨 먼저, 이름이 나오고 字, 號가 나오고 생졸년월일시와 이력사항 즉, 學統, 科宦: 옛날에는 이력사항 등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학문을 누구한테 배웠다는 학통과, 또 무슨 과거에 합격했다, 벼슬은 어디까지 했다는 등의 과환, 그리고 그밖에 국난에 관해서 절의를 세웠다는 점을 쓴다. 다음에 墓地의 소재, 기타 묘비문이라든가, 훈장 등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배우자의 경우 본관을 쓰고, 대개의 경우 배우자의 父, 祖, 曾祖, 外祖, 배우자의 生卒年月日을 쓴다. 중국의 경우는 어디에 사는 누구의 딸이라고만 기록한다. 딸과 그의 자손 즉, 외손에 관하여는, 딸은 '女'라고 표기하고 그 아래에 그 남편을 쓴다. 그러나, 초기족보는 외손을 수록함에 있어 본손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수록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476년 간행한 安東權氏成化譜(3권 3책)과 1565년 간행한 文化柳氏嘉靖譜(10권 10책), 1649년 간 靑松沈氏譜 등이다. 한편 중기이후로는 외손 중 특출한 인물들을 선별적으로 수록하였다. 1750년 간행한 淸風金氏譜의 경우 외손 또는 외증손까지만 썼다. 후기 및 현대는 사위이름 또는 외손까지만 쓴다. 하지만 현대는 딸의 이름도 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외손은 전혀 싣지 않는다. 다만 딸의 이름을 적고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출가했다는 것만 기록하였다.

족보에는 개인개인의 주거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移居의 사실이나 世居地를 밝힌 예가 많다. 그 이유는 대개 조상의 뼈가 묻히고 혼백이 깃든 고향을 떠난 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 이거한 연유를 적었고, 또 자기의 근본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참고로 중국의 족보에는 生業에 관련된 기록을 썼다. 즉, '服賈' 등 상업에 종사했다는 점을 써놓는다. 족보

의 卷末에는 附譜, 別譜, 刊記, 跋文 등이 있다.

2. 족보가 발달하게 된 사회적 배경

무릇 가문이나 지역의 品格 내지 등급 같은 것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의 기준의 하나로서 '인물'을 고려하였다. 이른바 한 지방에 어질고 덕망이 높으며 학식이 풍부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천하에 알려진 인물이 태어나거나 入鄕하게 되면 그 자손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품격과 사회적인 지위까지 올라가 다른 지역에까지 명성을 울렸다. 그 품격 높은 지위는 그 인물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갈때까지 평생토록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다 그러하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인물'이라는 기준에 주어지는 상대적 비중이 크고 작음의 차이인 것이다. 그 人物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국가 및 사회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헌을 한 사람들이냐 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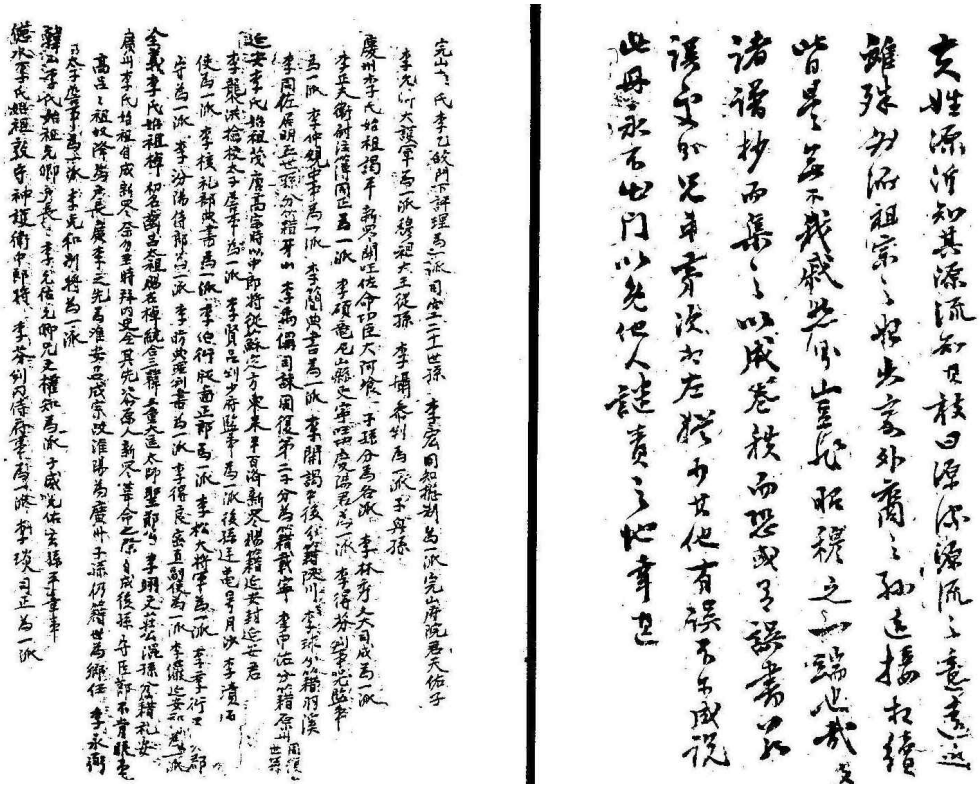
첫째는 官界에서 관직자로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들이다. 그 밖에도 혹은 고매한 학덕과 經世의 업적이 있는 학자로서 혹은 효나 충절과 같은 덕행의 실천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큰 공헌을 바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그 밖의 영역 예컨대 청빈한 성품과 근면검소한 생활이 보는 사람에게 저절로 감화를 주어 그 한평생 살아온 자취가 훗날 자손에게 가히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개인의 존재방식이나 개인을 평가하는 방식이 오늘날과 전혀 달랐다. 개인이 독립적이고도 평등한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 가족 내지 씨족의 구성원으로서만 비로소 한 사회인으로서의 정당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의 가계배경을 중요시하였다. 나는 나다가 아니라 어느 집안 어느 고을의 소속을 따졌다. 그래서 남을 평가할 때도 어느 집안 출신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외손이냐, 어느 집안과 결혼했느냐를 따졌다. 또한 같은 한 조상에서 갈라진 사이라도 이른바 혈연관계, 결혼을 통해서 성립되는 이른바 瓜葛관계를 이러한 인간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으며 사회 및 국가의 기본질서도 그러한 관계에 정상적인 유지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3. 의학인물이 대거 수록된 족보자료 『姓源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름이 있고 또 姓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인류 공통의 현상이다. 지구상의 어느 민족에 있어서나 대개는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姓이 없고 이름만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겠지만, 우리 한국의 경우 국민 누구나가 다 이름과 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고, 그 성이 있으면 당연히 全州李氏니 金海金氏니 密陽朴氏니 하는 본관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본관 같은 성씨를 사용하면서 누구는 양반이 되고 누구는 양반이 못되었으냐, 언제부터 중인이 되고 노비가 되었느냐, 무엇이 계기가 되었느냐,,등등 이런 것도 궁금하게 되고 그렇다보니 자연히 족보를 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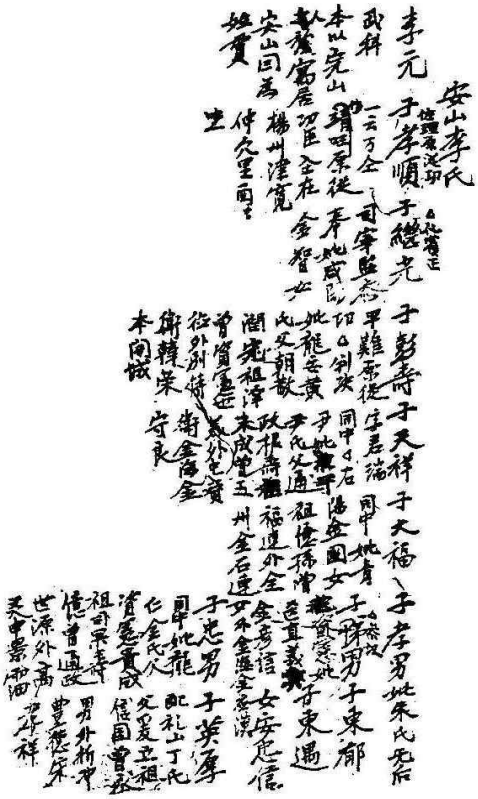
의학인물들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하다보면 자연히 의과학 인물들이 수록된 『성원록』를 찾게 된다. 대체적으로 전통시대의 의과학인물들을 연구하기위해서는 이보다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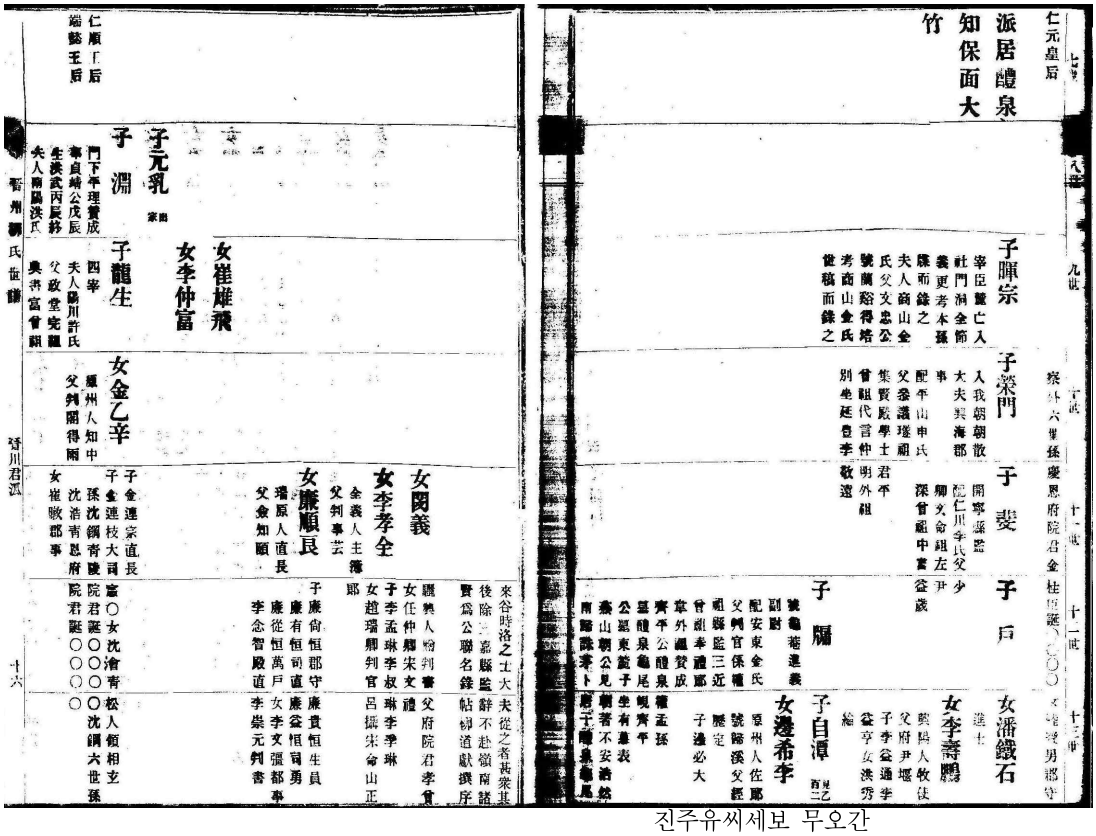
『성원록』은 李昌鉉이 자신의 譜學과 견문을 통해 이룩한 박학의 결실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학다식한 보학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점에서 『성원록』에 대한 접근은 일반 종합보들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성원록의 사료적 가치는 다음 연구로 미루고 성원록에 실려있는 성씨들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지위, 혼맥, 인맥 등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또한 『성원록』에 실려 있는 성씨에 관련기록 중에서 우리는 수많은 성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의과학인물들의 顯祖들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완산이씨는 李君錫, 李子興, 臨瀛大君, 李仝, 李普生, 潭陽君, 李春福, 李玉仝, 李命連, 李貴生 등 10여명의 인물들의 후손이 의과학인물들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학인물들이 의술에 처음 입문하게 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집안 대대로 세습되어 온 내력과 오직 功利와 效用에 가치를 두고 자신이 가진 기술로 생업을 이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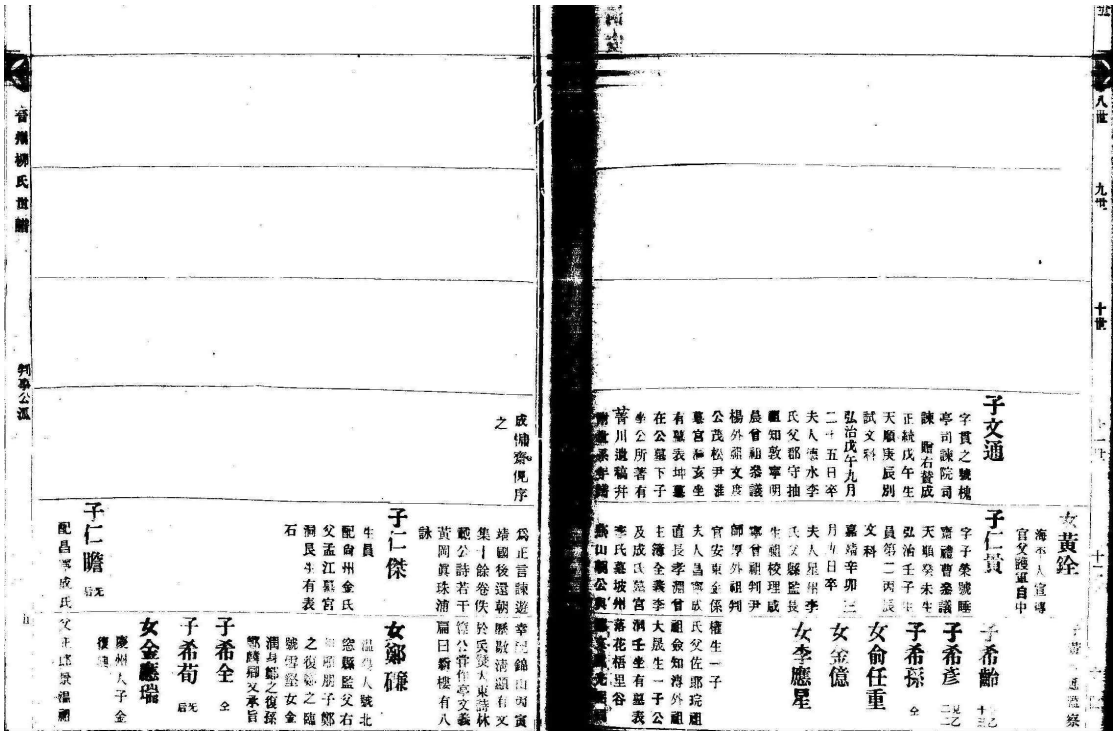


참고자료: 성원록

성원록 안산이씨편





진주유씨세보 무오간

진주유씨세보(1918년 무오간)